

보도시점 : 2023. 9. 6.(수) 11:00 이후(9. 7.(목) 조간) / 배포 : 2023. 9. 6.(수)

# 초경량 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산업 활성화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므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역
  - \*\* (운영시간)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고도) 100피트 이하 (수평범위) 붙임 참조
  - \*\*\* '21.12월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되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
  
-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 1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고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이하
  
-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	책임자	과 장	곽영필 (044-201-4294)
		담당자	사무관	정혜인 (044-201-4303)
			주무관	이준호 (044-201-4301)
	항공교통본부 공역총괄과	담당자	과 장	장승원 (053-668-0251)
			사무관	안성호 (053-668-0252)
			주무관	임재경 (053-668-0254)





충청남도 청양군 공설운동장



충청북도 보은군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잔디구장



경상남도 김해시 드론 연습장



경상북도 문경시 영강체육공원 축구장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축구장



경상북도 영천시 시민운동장



경상남도 진주시 스포츠파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생활체육공원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체련공원



경상북도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별 수평범위(좌표) 등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확인 가능